

글로벌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 성장과 북미 중심 상용화 경쟁 확대

해당국가	미국	기관(기업)	Marketsand Markets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자율주행 트럭 시장은 레벨4 상용화와 규제 정비에 힘입어 2026년 508.2억 달러에서 2035년 1,586.9억 달러로 연평균 13.5% 성장 전망

- 레벨2·3 운전자 지원기술의 양산차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, 레벨4 기반 자율 화물 운송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며 시장 성장을 견인
 - 레벨2·3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등 운전자 지원기술을 중심으로 양산 트럭에 확산되고, 레벨4는 장거리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상용 배치가 확대
 - 센서 가격 하락과 AI 컴퓨팅 플랫폼 고도화, 완성차 업체와 자율주행 기술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며 시장 성장 기반 강화
- 미국·EU·중국을 중심으로 규제 정비와 실증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, 자율 화물 운송의 상용화 기반이 강화되며 시장 확산이 가속
 -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 대형트럭 운행 허용, EU의 국경 간 자율 화물 회랑 확대, 중국의 대규모 자율물류 시범사업 추진으로 상용화 기반 확대
 - 운전자 부족과 물류 운영 효율화 수요에 대응해 장거리·허브 간 자동화 운송이 확대되고, 전기 상용차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적용도 증가

□ 북미는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을 주도하며, 자율주행 셔틀과 기술 제휴를 중심으로 응용 분야를 확대

- 미국은 자율주행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기술개발·상용화 투자를 기반으로 북미 자율주행 트럭 시장을 주도하며 산업 생태계 확대를 견인
 - 캘리포니아는 자율 대형트럭 시험·상업 운영을 허용하고, 텍사스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바탕으로 Aurora·Kodiak Robotics 등 주요 기업의 운영 거점으로 성장
 - 연방 차원의 SELF DRIVE 법안 재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제도 정비가 확대되며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
- 자율주행 셔틀의 상용 배치가 확대되고 완성차 업체와 기술기업 간 협력·경쟁이 심화되며, 화물 중심의 자율주행 시장이 여객과 통제구역 운송 분야로 다변화
 - 공항·캠퍼스 등 통제된 환경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보급이 확대되고, Beep과 MOIA는 미국 내 최대 5,000대 규모의 차량 배치를 추진
 - AB Volvo, Daimler Truck, MAN, Iveco, PACCAR 등이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 선점 경쟁을 강화

※ 출처 : MarketsandMarkets(2026.06), Autonomous Trucks Market worth \$158.69 billion by 2035